

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, 나흘 만에 50% 넘는 발급률 보여

- 2월 25일부터 발급한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2월 28일에 50% 돌파, 현재 (3. 4.) 발급률 62.3%, 총 174,401명 발급
- 국공립 및 민간 예술단체 등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이용자 할인 혜택 제공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희영, 이하 문체부)는 2월 25일부터 발급한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의 발급률이 나흘 만인 2월 28일에 50%를 넘어섰다고 밝혔다.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(2006. 1. 1.~2007. 12. 31. 출생자)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는 현재(3. 4.) 기준 총 174,401명,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인 28만 명의 62.3%가 발급받았다.

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로 공연 <국립발레단, 백조의 호수>, 전시 <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, 빛을 수집한 사람들>, 영화 <왕과 사는 남자> 등 주로 예매

2월 25일 발급 개시 이후 일주일간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이용자가 주로 많이 예매한 공연은 발레 국립발레단의 <백조의 호수>였는데 이는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음악 중 하나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를 국립발레단이 아름답게 풀어내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전시는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미국의 수집가 로버트 리번이 수집,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<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, 빛을 수집한 사람들>, 영화는 조선왕조실록 속 기록에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여 어린 왕 단종의 서사를 채워 곧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<왕과 사는 남자>에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.

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이용자 대상 클래식, 뮤지컬, 연극 등 공연 관람권 할인

국립중앙극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, 공립

문화예술기관, 민간 공연예술계 등은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.

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공연으로는 ▲국립중앙극장의 ‘절창VI(4. 24. ~25.)’, ▲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‘영화음악 콘서트(5. 1.~2.)’, ▲국립극단의 ‘반야 아재(5. 22.~31.)’, ▲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‘그루브 인(in) 판소리(4. 3.)’, ▲부산 문화회관의 ‘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(4. 3.)’, ▲대전예술의전당의 ‘연극 <키리에>(4. 24.~25.)’, ▲경남 문화예술회관의 ‘발레 <헨젤과 그레텔>(5. 8.~9.)’, ▲인천 남동문화재단의 ‘국립합창단, 클래식 세레나데(5. 16.)’, ▲전주 한해랑아트홀의 ‘브라보 마이 라이프(3. 27.~7. 5)’, ▲대전 아신극장의 뮤지컬 ‘씨니텐(오픈런)’, ▲서울 구로창의아트홀의 발레 오페라 ‘호두까기 인형(5. 9.)’ 등이 있으며, 할인 혜택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 참여 기관과 공연·전시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(youthculturepas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6월 30일까지 발급 신청, 일부 지역은 조기 마감된 곳도 있어

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는 작년에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올해 신규 대상이 되는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므로, 일부 지역은 발급이 마감된 곳도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.

청년들은 발급받은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의 포인트를 협력 예매처*에서 공연과 전시,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. 다만,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를 발급받은 후 7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. ‘청년 문화예술패스’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(1577-1968) 또는 공식 누리집의 ‘1:1 문의하기’를 이용하면 된다.

* (예매처) 놀티켓, 예스24, 티켓링크, 멜론티켓, 메가박스, 롯데시네마, 씨지브이(CGV)
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	명수현 (044-203-2511)
		담당자	사무관	신나라 (044-203-2516)

